

 금융감독원	<h1>보 도 자 료</h1>	KSD  한국예탁결제원
--	------------------	---

보도	2024.1.8.(월) 14:00	배포	2024.1.8.(월)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구조화증권팀	책임자	국 장	오 상 완	(02-3145-8100)
		담당자	팀 장	고 병 완	(02-3145-8090)
	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부	책임자	부 장	김 종 현	(051-519-1780)
		담당자	팀 장	안 병 옥	(051-519-1785)

개정 자산유동화법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

- 주관회사 대상 간담회 개최 및 「자산유동화 실무안내」 발간 -

〈 주요 내용 〉

- '24.1.12.(금)부터 개정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자산유동화법')이 시행됨에 따라,
 - 금융감독원은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회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('24.1.8.)하는 한편, 「자산유동화 실무안내」 개정본을 발간하였습니다.
 - 아울러, 개정법 시행으로 신규 도입된 규제의 이행상황을 점검('24.1.12.~2.11. 1개월간 발행된 유동화증권 대상)하여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하고 안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.
-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.

I | 간담회 개최

1 | 개 요

- '24.1.8.(월) 금융감독원은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.
- 증권회사는 주관회사로서 자산유동화 구조를 설계하고,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참여하게 될 자산관리자, 업무수탁인 등을 선정하여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.
- 이번 회의는 개정 자산유동화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서 주관회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.

간담회 개요

- (일 시) '24.1.8.(월) 14:00 ~ 15:00
- (장 소) 금융감독원 9층 중회의실
- (참석자) 금융감독원(기업공시국장, 구조화증권팀장), 예탁결제원(증권정보기획팀장), 금융투자협회(채권팀), 증권회사(24개사)

2 | 주요 논의내용

- 개정법에 따라 비등록 유동화증권*에도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(법 제33조의2) 및 위험보유 의무(법 제33조의3)가 적용됩니다.
- *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지 않고 발행한 유동화증권 (예 : ABCP, AB단기사채 등)
- 주관회사는 업무수탁인 등으로 하여금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명확히 입력하도록 하고
- 유동화구조 설계 시에 위험보유 의무 규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자산보유자 등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.

신규 도입된 규제

관련 법령	주요 내용	제재 조치
법 §33조의2 (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)	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행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공개 의무화	과태료 1,000만원 이하
법 §33조의3 (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)	자산보유자가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5%를 만기까지 의무보유	과징금 최대 20억원

□ 한편, 한국예탁결제원은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확대 개편한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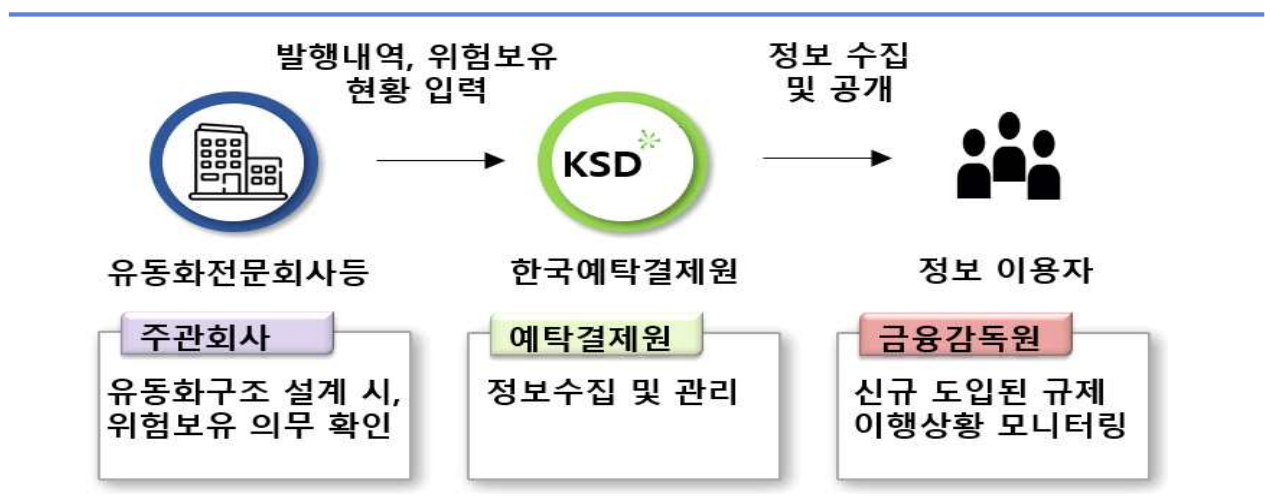
- 유동화증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조* 및 발행인 등의 변화된 업무 프로세스**에 대해 소개하였으며,

* 유동화증권 정보수집시스템(e-SAFE) 및 정보공개시스템(SEIBro)으로 구성

** 기존에 제출했던 발행내역 외에 위험보유 의무 정보 제출 관련 프로세스 추가 등

- 개정 법령에 따라 발행내역 등 공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정보* 공개 시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.

* 위험보유 의무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보유내역에 관한 사항 등



Ⅱ 「자산유동화 실무안내」 발간

□ 금융감독원은 개정 자산유동화법의 주요 내용 등을 반영하여 「자산유동화 실무안내」 개정본을 발간하였습니다.

- 이번 개정본에는 유동화의 개념, ABS 발행 현황 및 주요 유형, 법령 개정에 따른 실무상 유의사항 등을 수록하였습니다.

자산유동화 실무안내 주요 내용

1장. 개 념	2장. 발행현황	3장. 유동화 실무	4장. 발행 유형	부 록
· 유동화 정의 · 구성요소	· 도입배경 · ABS 발행추이	· 유동화 업무절차 · 참여자별 역할	· 단일 SPC 구조 · 신탁 활용 구조	· 관련 법규

- 한편,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전자공시시스템(DART)*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**에 PDF 파일을 게시하였으며,

* DART 홈페이지(<http://dart.fss.or.kr/> > 기업공시제도일반 > 공시유의사항)

** 금감원 홈페이지(<http://www.fss.or.kr/> > 업무자료 > 금융투자 > 자산유동화관련자료)

- 향후에도 유동화 발행 구조 및 실무 유의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.

III 이행상황 점검 사전예고

- 금융감독원은 신규 도입되는 규제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을 신속히 안내하고 정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
-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을 통하여 개정법 시행 후 1개월간('24.1.12.~2.11.)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.

< 점검내용 >

■ (발행내역 공개) 법령에서 정하는 공개항목 기재의 충실성

- 그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정보를 입력하지 않았던 실물 발행증권, 해외 발행증권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

■ (위험보유 현황) 한국예탁결제원에 입력된 규제 적용 대상 여부 확인

- 규제 적용 대상: 의무보유 금액 및 보유 방법(수직·수평·혼합)의 정확성 점검
- 규제 면제 대상: 입력한 면제사유와 첨부한 증빙자료를 비교하여 규제 면제의 적정성 확인

- 향후에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주관회사 간담회,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여,
- 개정 자산유동화법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.